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최선녀¹, 최항준^{2*}

¹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²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Effects of Child's Daily Stress on Child's Problem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ed Mothers Nurture Attitude

Choi, Seon-nyeo¹, Choi, Hang Jun^{2*}

¹Dep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Dae Jeon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D”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6세 유아와 그들을 자녀로 둔 160명의 취업모였다.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과 주의집중은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와, 불안/우울은 논리적 양육태도, 불안/좌절감 경험-자존감 상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은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와, 주의집중은 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 강압적-논리적 양육태도와, 불안/우울은 비난/공격적 상황 스트레스, 강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취업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남아의 경우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고, 여아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논리적 양육태도를 증진시켜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ren's daily stress and employed mothers' nurturing attitude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 of employed mothers' nurturing attitude. 160 children (aged 3-6, in city "D")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PSS 18.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en's daily stress, their problem behavior and the employed mothers' nurturing attitude,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the boys, their aggression and attention have effects on their coercive attitude, and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have effects of decreasing magnitude on their logical attitude, blaming / offensive stress and pride-hurt stress in that order. Secondly, in the case of the girls, their aggression has effects on their coercive attitude, and their attention has effects of decreasing magnitude on their anxiety / frustration stress and coercive-logical attitude in that order. On the other hand, their anxiety / depression have effects of decreasing magnitude on their accused/offensive stress and coercive attitude in that order. Third, the employed mothers' nurturing attitude ha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children's daily stress and their problem behavior. However, no such mediating effect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the boys. Therefore, the mothers tend to foster complementary and logical parenting, rather than coercive or negligent parenting. It is thought that children need to reduce their stress levels in everyday life (in order to?) reduce their problems.

Keywords : Employed Mother, Nurture Attitude, Child's Daily Stress, Child's Problem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Choi, Hang Jun(Pai Chai University)

Tel: +82-10-9366-1896 email: chj2161@hanmail.net

Received August 9, 2016

Revised (1st February 6, 2017, 2nd March 9,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정보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에게 있어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 분담, 개성의 발휘 및 자아 실현 등 정체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업에서 만족을 얻음으로써 자기를 필요한 존재로 소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의 증가와 맞물린 어머니의 취업은 맞벌이 가정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그러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취업생활과 자녀양육책임의 부담은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취업모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양육부담을 꼽는다. 가사와 양육책임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한 채 개인의 가정 문제로 남아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양육태도 자체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유아의 기관 이용 시기를 앞당겼고, 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또래 간의 경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가중되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유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 되면서 유아들은 불안과 우울, 공격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유아들의 건강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보다는 부모의 생활환경과 요구로 인해 유아들도 반복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증가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적·질적으로 제한 받을 때 유아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47], 특히,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인식한다[39]. 부모와 떨어져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불안,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공격적 상황을 접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즉, 유아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39].

이렇게 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결과로 이어진다. 유아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는 정도에 따라서 불쾌감과 좌절감,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다양한

신체 이상 증상 등을 호소, 불안, 우울, 집중력저하, 공격성 증가로 인한 잦은 싸움을 하기도 하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유아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언어능력이 미숙하여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3]하고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과 문제를 촉발하는 강력한 변인[30]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유아가 체감하는 스트레스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남아보다는 여아가 자존감을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42]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38,21,32]도 있어 인식의 정도는 남아와 여아가 다르겠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나 문제행동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나 부정적 양육태도 등을 그대로 표출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은 집단 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3,43]. 즉 유아에게 있어 또래 괴롭힘은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쉽게 처하게 하고[12], 심각한 문제행동도 초래하게 한다. 최근 유아의 공격적 행동의 정도가 심해지고 폭력적인 사건의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31,13]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연구[22,20,4]에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유아 학대에 대한 연구[6,23]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금전적 어려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체벌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자녀의 공격성을 촉발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5,22]. 이러한 강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초래하며,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향한 체벌과 언어적 폭력을 유발하게 한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남아에게 보다 자주 신체적 체벌과 같은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여아에게는 따뜻하고 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48,35]. 이와 함께 남아는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강압적 양육태도가 강하게 관련되며, 여아는 우울/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이 방위적 양육태도와 관련된다[26]. 즉, 어머니는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은 유아의 행동

에 대해서는 강압적 양육태도를,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방임적 양육태도를 하게 된다[41]. 즉,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양육태도도 자녀의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별적인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산만한 행동 등이 증가할수록 주의집중과 관련한 문제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주의집중이 어려운 유아는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또래로부터 소외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또래 공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34].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당한 유아의 경우, 자존감은 낮아지고 불안감은 높아져 대인관계로 인한 피해경험은 산만성을 증가시킨다[36,37].

한편, 유아의 불안/우울은 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가 불안/우울을 경험할수록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특성은 자녀에게 전이되기 쉽다.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인 다른 유형의 양육을 행하는 어머니보다 더 부족하다[11]. 특히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방임 정도가 높다는 연구[44]도 나오고 있다. 학자들[8]에 의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잘못된 훈육, 즉 성취 중심의 양육, 지적 발달의 강조 등이 유아의 불안, 우울, 발육부진 등 발달문제와 문제행동, 성인기 이후 사회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유아의 불안/우울 문제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15]은 부정적 정서성이 강한 유아가 불안/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논리적 태도는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도덕에 대해 성숙한 태도도 갖게 한다[17]. 즉 유아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명확한 설명과 감정을 언급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유아는 도덕적 관점을 내면화 하여 행동에 반영한다[27].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논리적 양육태도는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죄의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과를 잘하며 내면화된 행동을 많이 드러낸다[45,26]고 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과들로 유아가 나타내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강압적이거나 방임적 양육태도는 사용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논리적 양육태도는 행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취업모의

경우 민주적, 온정적, 일관된 양육을 한다는 연구결과들[5,14]과, 직업만족도가 높은 취업모일 경우, 자녀에 대해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여 덜 권위적이며[16], 자녀를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28] 자녀를 위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는 거부적, 지배적, 덜 애정적, 민감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들[7,9]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미숙하여 유아를 방임하거나 강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어[28] 유아의 문제행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음도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 없이 어머니 모두는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을 한다[40]는 보고도 있어 양육태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문제행동은 단일 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강압적, 방임적, 논리적)가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대상은 D 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6세 유아와, 그들을 자녀로 둔 300명의 어머니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들에게 설문방법을 설명하였고 질문지는 대상 유아들을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300부의 설문지 중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 160명을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

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N= 160

content	division	N	%
gender	male	79	49.4
	female	81	50.6
Child	3	69	43.1
	4	62	38.8
	5	24	15.0
	6	5	3.1
Mother	under 30s	3	1.9
	31s-35s	32	20.0
	36s-40s	84	52.5
	41s-45s	35	21.9
	over 46s	5	3.1
	missing data	1	0.6
	high school	25	15.6
	college	41	25.6
edu cation	university	77	48.1
	master	17	10.6

2.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취업모의 양육태도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PDS(Parenting Style and Dimension)[2]를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강압적(10문항), 방임적(6문항), 논리적(6문항)의 세 가지 요인(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태도 중 강압적 신뢰도 Cronbach $\alpha = .83$, 방임적 신뢰도 Cronbach $\alpha = .61$, 논리적 신뢰도 Cronbach $\alpha = .84$ 이다.

2.2.2 유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한국판으로 변안[24]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유아용CBCL로서 유아의 문제행동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3점)’로 3

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요인 중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공격성, 주의집중, 불안/우울 문제행동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 신뢰도 Cronbach $\alpha = .81$, 주의집중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불안/우울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이다.

2.2.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19](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PDS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0점)’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3점)’까지 4단계인 Likert식 척도이다.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1$, 불안/좌절감 경험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자존감 상함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3$ 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검산도구의 신뢰도를 위한 Cronbach α 계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과,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지니는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의 직·간접 효과를 통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2를 통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는데 공격성($r = -.21, p < .01$), 주의집중($r = -.17, p < .05$), 불안/우울($r = -.16, p < .05$), 불안/좌절감 경험($r = -.18$,

Table 2.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gender	1									
Employed Mother	2. coercive	-.12	1							
	3. neglect	.07	.40**	1						
	4. logical	.14	-.45**	-.37**	1					
	5. aggression	-.21**	.34**	.21**	-.26**	1				
Child's Problem Behavior	6. attention	-.17*	.34**	.19*	-.20*	.72**	1			
	7. anxiety/depression	-.16*	-.30**	.17*	-.24**	.83**	.69**	1		
	8.blame/ offensive	-.10	.27**	.07	-.14	.16*	.18*	.27**	1	
Child's Daily Stress	9. anxiety/frustration	-.18*	.31**	.10	-.13	.26**	.25**	.33**	.68**	1
	10. pride hurt	.01	.21**	.06	-.06	.04	.06	.11	.68**	.70**

* $p < .05$, ** $p < .01$.

$p < .05$)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유아의 성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r = .34, p < .01$), 주의집중($r = .34,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불안/우울($r = -.30,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r = .27, p < .01$), 불안/좌절감 경험($r = .31, p < .01$), 자존감 상함($r = .21,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취업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공격성($r = .21, p < .01$), 주의집중($r = .19, p < .05$), 불안/우울($r = .17, p < .05$)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내지 않았다.

취업모의 논리적 양육태도는 공격성($r = -.26, p < .01$), 주의집중($r = -.20, p < .05$), 불안/우울($r = -.24, p < .01$)과는 부적상관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과 공격적 상황에 접함·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는 정적상관을 나타

낸 반면, 자존감 상함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2 유아의 성별에 다른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2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 성별을 분류하여 일상적 스트레스(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와 취업모의 양육태도(강압적, 방임적, 논리적)가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남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강압적 양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variables affect Boys' problem behavior

N= 79

variables	B	β	R	ΔR	F	
aggression	coercive nurture attitude	.247	.321**	.103	.091	8.850 **
	Dubin-Watson = 1.993					
attention	coercive nurture attitude	.251	.283*	.080	.068	6.692 *
	Dubin-Watson = 1.983					
anxiety/ depression	logical nurture attitude	-.208	-.254*	.103	.091	
	anxiety/ frustration stress	.393	.519***	.175	.163	8.071 ***
	pride hurt stress	-.230	-.368*	.244	.232	
Dubin-Watson = 2.233						

* $p < .05$, ** $p < .01$, *** $p < .001$.

육태도 였으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8.850(**)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기울기 β를 통해 알아본 결과,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10.3%(수정지수에 따르면 9.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이며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6.692(*)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Table. 2를 통해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대 .83(< .8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기울기 β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주의집중에 8.0%(수정지수에 따르면 6.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논리적 양육태도와 일상적 스트레스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8.071(***)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기울기 β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이렇했다. 취업모의 논리적 양육태도, 불안/ 좌절감 경험 스트레스, 자존감 상함 스트레스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본 회귀식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알아보았다. 남아의 공격성에서의 공차한계는 1.000, VIF 지수는 1.000, 주의집중의 공차한계는 1.000, VIF 지수는 1.000, 불안/우울의 공차한계는 .508~.939, VIF

지수는 1.064~1.968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남아의 공격성에 1.993, 주의집중은 1.983, 불안/우울은 2.233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2.2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였고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17.054(**)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인의 영향을 기울기 β를 통해 알아본 결과,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17.8%(수정지수에 따르면 16.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일상적 스트레스였고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10.871(***)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기울기 β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 강압적 양육태도, 논리적 양육태도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어 주의집중에 29.8%(수정지수에 따르면 28.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불안/우울에 24.4%(수정지수에 따르면 23.2%)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일상적 스트레스였다. 변인들 간의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은 9.000(***)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비난/공격적 상황 스트레스, 강압적 양육태도 순서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여아의 불안/우울에 18.7%(수정지수에 따르면 17.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회귀식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variables affect Girls' problem behavior

N= 81

	variables	B	β	R	Δ R	F
aggression	coercive nurture attitude	.135	.421***	.178	.167	17.054 ***
	Dubin-Watson = 2.109					
attention	anxiety/ frustration stress	.203	.327**	.176	.165	
	coercive nurture attitude	.222	.409***	.250	.239	10.871 ***
	logical nurture attitude	.156	.250*	.298	.287	
Dubin-Watson = 1.924						
anxiety/ depression	blame/ offensive stress	.125	.304**	.142	.131	9.000 ***
	coercive nurture attitude	.113	.225*	.187	.176	
Dubin-Watson = 2.238						

p<.01. *p<.01. *p<.001.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알아보았다. 여아의 공격성에서의 공차한계는 1.000, VIF 지수는 1.000, 주의집중의 공차한계는 .694~.862, VIF 지수는 1.160~1.440, 불안/우울의 공차한계는 .895, VIF 지수는 1.118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여아의 공격성에 2.109, 주의집중은 1.924, 불안/우울은 2.238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3.2.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태도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3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3단계의 검증 과정에서 모두 유의해야만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단계(A)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B)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

향력(3-1단계)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3-2단계)을 동시에 살펴볼 때 유의해야 한다.

또한 3-1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를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영향력이 3-1단계의 영향력보다 더 커야한다.

즉, 독립변인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이들 두 변인을 동시에 종속변인인 유아의 문제행동에 투입하였을 때(3-1단계, 3-2단계), 독립변인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3-1단계)이 단독으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2단계) 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영향에서 취업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Table 5.6과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 독립변인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남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3-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Table 5.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Boys' problem behavior N= 79

Step	Variables	B	SE	β	t	R	Δ R	F
Step 1 (A)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childs stress → nurture attitude	.090	.061	.167	1.486	.028	.015	2.208
Step 2 (B)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childs stress → behavior problem	.087	.085	.116	1.029	.014	.001	1.058
Step 3-1 (B)	argument → dependent variable childs stress → problem behavior	.056	.084	.075	.673			
Step 3-2 (C)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nurture attitude → problem behavior	.341	.155	.246	2.194 *	.072	.048	2.963

*p < .05, **p < .01, ***p < .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Girls' problem behavior N= 81

Step	Variable	B	SE	β	t	R	Δ R	F
Step 1 (A)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childs stress → nurture attitude	.174	.061	.306	2.862 **	.094	.082	8.190 **
Step 2 (B)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childs stress → problem behavior	.152	.038	.412	4.017 ***	.170	.159	16.135 ***
Step 3-1 (B)	argument → dependent variable childs stress → problem behavior	.118	.038	.319	3.101 **			
Step 3-2 (C)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nurture attitude → problem behavior	.198	.067	.304	2.953 **	.253	.234	13.216 ***

*p < .05, **p < .01, ***p < .001.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남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만 유의하였다($\beta = .246, p < .05$). 즉,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Table 6을 살펴보면 1단계 독립변인 여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며($\beta = .306, p < .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여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412, p < .001$). 3-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다($\beta = .304, p < .01$). 매개변인인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독립변인인 여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이를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3-1의 영향력은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여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β 값과 비교한 결과 .412에서 .319로 감소되었다($p < .01$). 즉,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여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때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은 Figure 1·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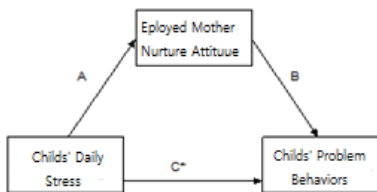


Fig. 1. Boys' employed mother nurture attitude mediating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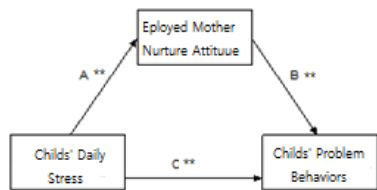


Fig. 2. Girls' employed mother nurture attitude mediating effect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3~5세 남녀 유아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

른 일상적 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녔는지 알아보고,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22,20,4,6,23]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행동이 증가될수록 취업모의 양육태도도 더욱 강압적임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는 남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으로 엄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강화가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여겨야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아의 주의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취업모는 강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주의집중과 관련한 과잉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은 취업모의 입장에서 심리적·신체적 부담과 곤란함을 즉각 상쇄하고,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한 대책으로 화를 내거나 위협, 체벌, 적대감 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논리적인 태도로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여 남아의 주의집중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남아의 우울/불안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논리적 양육태도, 불안/좌절감 경험·자존감 상함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남아의 불안/우울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날 때 취업모는 논리적인 양육태도를 갖기 어렵고 그로인해 남이는 불안/좌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자존감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녀의 우울/불안 문제행동이 증가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호관계 안에서 자녀가 느끼는 우울과 불안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기분을 건전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취업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여아의 공격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아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록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도 높아졌는데 성고정관념과 일치될 수 있다는 연구[4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반복될수록 여아가 자연스럽게 모델링하여 또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리거나 언어적 폭력 및 위협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모는 따뜻하고 논리적인 양육태도의 전략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신감과 유능감도 증가시킬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여아의 주의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쳤고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 논리적 양육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좌절감 경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산만성을 유발[36-37]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주의집중과 관련하여 여아에게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취업모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행동에 덜 민감할 수 있어 강압적이거나 거부적, 방임적 양육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7,9]는 연구결과도 있어 감정을 언급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하여 자녀의 불안/좌절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내면화하여 행동에 반영[36]하게 되므로 유아의 주의집중과 같은 문제행동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여아의 불안/우울 문제행동의 경우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한 변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비난/공격적 상황 스트레스,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아는 불안/우울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면 비난/공격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취업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여아의 불안/우울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비난/공격적 상황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것은 유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숙함에 대한 무시, 인격 손상, 압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이며 어머니도 감정조절 없이 행동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녀의 기분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논리적인 양육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아는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고 여아는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아의 경우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이었지만 남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남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때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여아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여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게 있어 취업모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고, 여아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취업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를 달리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공격성, 주의집중, 불안/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때 강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어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어머니의 취업이 가정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취업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 부모역할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평한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역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더욱 보편화된다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특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유아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특성도 양육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직접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자신의 양육태도를 보고한 자료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후 다양한 행동관찰(교사, 유아가 포함된)을 하거나 측정하여 살펴본다면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을 취업모로 제한하였으므로 비취업모도 포함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관계들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Burts, D. C., Hart, C. H., Charlesworth, R., & Kirk, L. "A comparison of friendship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ment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pp. 407-423, 1990.
DOI: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30-5](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30-5)
- [2] Calzada, E. J., & Eyberg, S. M.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 31, no. 3, pp. 354-363, 2002.
DOI: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103_07
- [3] Chandler, L. A. Childhood stress: Teacher's rol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5 369, 1987.
- [4] Crnic, K. A., Gaze, C., Hoffman, C.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pp. 117-132, 2005.
DOI: <https://doi.org/10.1002/icd.384>
- [5] Crockenberg, S., & Litman, C.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62, no. 5, 930-953, 1991.
DOI: <https://doi.org/10.2307/1131144>
- [6] C. Y, Kang, Y. Z, Chang,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 Marital Conflict ,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 Problem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0, no. 3, pp. 51-75, 1999.
- [7] D, S. Woo,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for the rearing of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other and child behavior problems" *Kyeong Nam University*, 1992.
- [8] Dubowitz, H. Papas, M. A. Black, M. M. and Starr, R. H. "Child Neglect Outcomes in High-Risk Urban Preschoolers", *Pediatrics*, vol. 109, no. 6, pp. 1100-1107, 2002.
DOI: <https://doi.org/10.1542/peds.109.6.1100>
- [9]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toddlers, mothers, and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1, no. 5, pp. 774-783, 1985.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1.5.774>
- [10] E, K. Oh, "Effect of working mothers rearing, spousal support, job satisfaction in parenting stress" *MokWon University*, 2002.
- [11] Gaines, R. Sandground, A. Green, A. and Power, E. "Etiologic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ultivariate study of abusing, neglecting and normal m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pp. 531-540, 1978.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87.5.531>
- [12] G. I, Kim, H. O, Sim, "Daily Hassles, Bullying and Victimization: A Comparison of Grade and Gender",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3, no. 5, pp. 139-151, 2002.
- [13] G. N, Le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and the Variables as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5, no. 1, pp. 31-44, 2006.
- [14] Gold, D.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s-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vol. 49, no. 1, pp. 75-84, 1978.
DOI: <https://doi.org/10.2307/1128595>
- [15] Goldsmith, H. H., Buss, K. A., & Lemery, K. S.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x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importance oh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 6, 89, pp. 1-905, 1997.
- [16] Greenberger, E., & Goldberg, W. A.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pp. 22-35, 1989.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5.1.22>
- [17] Henry, R. 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reasoning" in the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Human Development*, 23, pp. 105-125, 1980.
DOI: <https://doi.org/10.1159/000272542>
- [18] H. J Kim,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man*, vol. 6, no. 2, pp. 81-95, 2001.
- [19] H, K. Yeom,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vol. 11, no. 1, pp. 67-82, 1998.
- [20] H. O, Oh, S. Y, Oh, Y. H, Kim, "Mother's Characteristics, Disciplinary Methods, &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Agg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5, no. 2, pp. 1-22, 2007.
- [21] J. H. An, "study about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Daily Stres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2] J, H. Kim, K, J. Park, "Children`s Aggression: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7, no. 3, pp. 149-168, 2006.
- [23] J. Y, Lee, J. S, Han, "Child Abuse and Child, 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4, no. 2, pp. 63-78, 2003.
- [24] K, J. Oh, Y, A. Kim,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

- 1.5-5" HUNO Assessment, 2008.
- [25] K, N. Lee, "The Effects of Child's Perceived Marriage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on Child Abus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3, no. 1, pp. 63-73, 2004.
- [26] K, S. Hong, "Effects of Mother's Discipline Style & Children's Temperament on Morality in Young Children"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vol. 9, no. 1, pp. 1-16, 2005.
- [27] Laible, D. J. "Mother-child discourse surrounding a child's past behavior at 30 months: Links to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arly conscience development at 36 months." Merrill-Palmer Quarterly, vol. 50, no. 20, pp. 979-992, 2004.
DOI: <https://doi.org/10.1353/mpq.2004.0013>
- [28] Lerner, J. V., & Galambos, N. L.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pp. 1157-1164, 1985.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1.6.1157>
- [29] Lytton, H., and Romney, D. M.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9, no. 2, pp. 267-296, 1991.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9.2.267>
- [30] M. J. Jong, " Impact of Discussion Activities about Fairy Tale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 [31] M. J. Kim, H. S. Doe,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 Marital Conflict ,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2, no. 2, pp. 149-166, 2001.
- [32] M. S. Hang, "research on the difference of children's daily stress depending on home environment" Chung Ang University, 2000.
- [33]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3, pp. 561-575, 2001.
DOI: <https://doi.org/10.1023/A:1010448604838>
- [34] Pope, A. W., & Bierman, K. L.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elative roles of aggress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pp. 335-346, 1999.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35.2.335>
- [35] Rettew, D. C., Copeland, W., Stranger, C., & Hudziak, J. J.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DSM-IV ex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5, pp. 383-391, 2006.
DOI: <https://doi.org/10.1097/00004703-200412000-00001>
- [36] Shields, A., & Cicchetti, D., & Ryan, R. M.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pp. 57-75, 1994.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885>
- [37] Shields, A., & Cicchetti, D.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pp. 349-363, 2001.
DOI: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003_7
- [38] S .H. Kim,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aily hassles", YonSei University, 2004.
- [39] S, H. Park, G, U. Kim, "An Analysis of Microsystem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aily Hassle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4, no. 4, pp. 1-14, 2003.
- [40] S, J Choi, Study on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002.
- [41] S. N, Choi,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others' psychological, nurturing behavior variables, and infants' temperament on infant development", Pai Chai University, 2015.
- [42] S. Y, Park, H. J, Moon, "Relevant Variables of Young Children's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2, no. 12, pp. 1-14, 2004.
- [43] Taki, M.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en and Australia", Japanese Society, 5, pp. 118-132, 2001.
- [44] Y, H. Hur, H, M. Yoon, "Mother's Employment, Social Support and Child Neglect"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vol. 8, no. 2, pp. 37-52, 2004.
- [45] Y, H. Kim, "Original Articles : The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1, pp. 33-42, 2005.
- [46] Y, H. Un,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and the daily hassles and problems behaviors of children", Catholic University, 2006.
- [47] Zhou, Q., Eisenberg, N., Wang, Y., and Reiser, M. "Chines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dispositional anger/frustration: Relations to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 pp. 352-366, 2004.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40.3.352>

최 선 녀(Choi, Seon-nyeo)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최 항 준(Choi, Hang Jun)

[정회원]



- 2014년 9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